



더불어민주당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대 총선 후보자 컷오프(공천배제)와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호창·김현·전정희 “이의신청 하겠다”

더민주 컷 오프 반등

유인태·백군기 “수용”

더불어민주당 공천배제 통보를 받은 의원 10명에는 전직 비대위위원장에서 초선까지 다양한 의원들이 포함됐다.

5선의 문화상 의원은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경원 기초실장, 참여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 열린우리당 의장,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한 야당의 대표적 원로 정치인이었지만 이번 컷오프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4선의 함평 출신 신계륜 의원과 3선의 유인태 의원은 대표적인 운동권 출신이다. 신 의원은 입법로비 논란으로 재판을

받았고, 송호창 의원은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의 지난 대선후보 시절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최측근이지만, 이번 신당 창당 과정에서 탈당하지 않고 더민주 잔류를 택해 눈길을 끌었다. 지역구의 기반이 탄탄하지 않았던 데다, 지난 대선 당시 한 차례 탈당했던 전력 있어 자칫 ‘철새’ 이미지가 덧씌워질 것을 우려한 행보로 풀이됐다. 하지만, 결국 이 같은 송 의원의 결단이 본인의 발목을 붙잡는 결과를 낳았다. 송 의원은 언론을 통해 컷오프 명단 소식이 전해진 뒤 후대전화를 끄고 침묵했다.

24일 공관위로부터 공천배제 통보를 받은 의원 일부는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일부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인태 의원은 당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그는 “평소 삶에서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이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해왔다”며 “그러나 당이 탈당 등 위난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미뤄왔던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장성이 고향으로 군 장성 출신인 백군기 의원도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백 의원은 “나라를 위해서 봉사했던 것으로 만족한다”며 “당의 결정을 수용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판기념회 갑질’ 논란을 불렀던 노영민 의원도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하지만, 김현·전정희 의원은 현역의원

평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대리기사 폭행사건이(의원 평가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며 “이의신청 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 측도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송호창·홍의락 의원도 20대 총선을 준비해왔던 만큼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컷오프 대상자 중 일부는 탈당 후 무소속 출마나 국민의당에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전정배 대표는 “계파패권 회생양으로 판단되면 받아들일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개 계파’ 국민의당 공천관리위 화음 이룰까

전윤철 등 11명 인선...安-千-金-朴 ‘나눠먹기’ 논란 오늘부터 자격 심사...컷오프 탈락자 영입 등 곳곳 뇌관

국민의당은 24일 전윤철 공직후보자자격 심사위원장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을 결정하고 11명의 공관위원을 인선하는 등 공천 체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공관위 인선에 대해 당내 계파 ‘나눠먹기’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혁신 공천 경쟁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윤철 공관위원장을 포함해 11명의 당내와 공천관리위원들을 인선했다. 당내에서는 이태규(52) 전략홍보본부장, 임재훈(50) 조직사무부총장, 김지희(50) 직능위

원장이 선임됐다. 외부 인사로는 박인혜(59) 전 새정치민주연합 여성리더십센터 소장, 김동기(56) 변호사, 이해영(54) 한신대 교수, 정연정(47) 배제대 교수, 이영훈(41) 전 JC 중앙회장, 김진화(39) 코브 대표, 조성은(28) 황금향 대표 등이 선임됐다.

하지만 공관위원 인선이 당내 계파별 추천으로 이뤄지면서 향후 의사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과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태규 본부장, 김지희 위원장, 정연정 교수, 김진화 대표 등은 안철수 대표 측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윤철 위원장, 조성은 대표, 이해영 교수는 전정배

대표 측 인사들로 분류된다. 임재훈 부총장, 박인혜 소장, 김동기 변호사는 김한길 상임 선대위원장 사람들로 알려졌다. 이영훈 전 회장은 박주선 최고위원측이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보직인 총선거확단장 인선이 난항을 겪는 것도 계파 갈등 탓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선거 핵심 전략으로서 야권연대나 더불어민주당 ‘컷오프’ 탈락 의원 영입 여부 등 문제, 대북 노선과 정체성 문제 등을 두고도 의견이 여전해 갈등의 ‘뇌관’이 곳곳에 잠복해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전윤철 공관위원장의 인선을 놓고 당내 혼선이 빚어진 것도 이 같은 복잡한 당내 계파 관계가 원인이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피바람 공천을 예고하고 있

는 더민주와의 공천 혁신 경쟁에서 국민의당이 크게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내 관계자는 “공관위가 지도부 인사들의 추천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추후 공천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수 있다”며 “국민의당이 과연 당내 이견을 극복하고 더민주와의 혁신공천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관위는 이르면 25일 첫 회의를 열어 공천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당헌·당규를 기초로 공천 시행 세칙을 마련하고 공천 세부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에 유성엽 의원, 원내 대변인에 김승남 의원을 임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공천·경선 본격 시작

광주·전남 예비후보들 긴장 고조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4·13 총선에 나설 후보 공천 및 경선 작업에 나서면서 광주·전남 예비후보들은 긴박감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에서 후보 ‘기근 현상’을 보이고 있는 더민주의 예비후보들은 바다민심을 다지면서 면접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더민주당이 후보 공천에 앞서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컷오프’ 작업을 실시하면서 예비후보자들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비하고 있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 대부분이 탈당하면서 시장 조직이 일부 와해돼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고, 일부 선거구에는 당 소속의 예비후보들마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 예비후보들은 후보 공모를 마친 뒤 경선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바다 민심 잡기에 ‘올인’하고 있다.

특히 일부 선거구의 경우 최고 4대1의 경선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 예비후보들은 경선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면, 후보가 난립한 국민의당 예비후보들은 어떤 경선률이 적용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공관위를 통과할 면접 준비에 나서고 있다.

24일 각 당과 지역경기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13 총선에 나설 후보 공천신청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공천·경선 작업에 들어갔다. 제2야당인 국민의당도 후보 공모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돌입했다.

또한, 국민의당이 더민주보다 현역의원과 예비후보들이 양적으로 풍부하긴 하지만, 더민주의 정밀심사를 통한 현역의원 컷오프 강화 등에 따라 현역의원들과 일부 선거구의 예비후보들도 긴박감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주의 혁신 공천 바람이 국민의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더민주 예비후보들은 공천심사위원회 면접 준비에 들어가면서도 중앙당의 ‘전략공천 지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비후보가 있어도 경쟁력과 지명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를 당 안팎에서 받고 있는 선거구의 경우 전략공천 대상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예비후보들은 더욱 긴장하고 있다.

아울러 예비후보들은 면접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가 늦어지고, 면접 일시가 늦춰지면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 광주시당은 조직 준비를 서두르며 본격적인 선거전을 준비

한 예비후보는 “더민주 보다 국민의당이 더 혁신공천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위해서는 공천 과정이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앞서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예비후보자 혁신 토론회 등 워크숍을 열거나 ‘5가지 시민과의 약속’ 발표하는 등 ‘정책’으로 관심을 두드리는 등 여론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지역경가 관계자는 “이번 총선은 지난 18·19대 총선과 달리 야당 텃밭인 광주와 전남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양당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최권일기자 cki@

새누리 김무성대표 오늘 공천 면접

충청·호남·강원·제주 마무리...오늘부터 부산·대구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24일 충청·호남·강원·제주 지역 공천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이어갔다.

25일에는 부산·울산·경남, 26일에는 대구·경북 등 새누리당 강세지역 면접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김무성 대표(부산 영도)도 공천 면접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당 대표의 공천면접이라는 진풍경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인 김정훈 정책위의장(부산 남구)도 이날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대구·경북 공천면접에서는 현역 의원과 이른바 ‘진박(眞朴·진실한 진박근혜

계)’ 연대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 대구등을 현역인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이재만 전 동구구청장, 대구 동갑 현역인 류성걸 의원과 정중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이날 충청·호남·강원·제주 지역 공천면접에는 이인제 최고위원, 공관위원인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 고(故)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의 친동생인 성일중씨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지역구에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이정현 최고위원(순천·곡성)과 주영순 의원(무안·신안) 등은 이날 면접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제 2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다행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당사의 정관 제16조에 의하여 제28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6년 3월 11일 (금) 16:00
- 장 소 : 전남 광양시 중동로 63 (중동, 해운빌딩 5층) 본사 회의실
- 보고사항
가. 영업보고 나. 감사보고
- 회의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제28기 영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임원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결정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액 결정의 건
-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본 회사의 실질주주로서 정기주주총회에 참석치 못하고 대리인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이 참석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25일

광양선박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상 용 (직인생략)

당신의 광장! 젊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맥갈비,삼겹살 & 돈까스

아이엘리시아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백식 12,500원	8,500원	5,000원
백식+와인 14,500원	9,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